

<楊賢門直節記>의 創作 技法에 대한 研究

강 문 종*

차 례

1. 緒論
2. 前作의 受容
3. 事實性 縮小와 주인공 드러내기
4. 逆轉構成을 통한 敘事의 進行
5. 結論

1. 緒論

<楊賢門直節記>¹⁾는 당나라 玄宗~肅宗代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장편소설이다. 선학들이 지적했듯이 대장편소설의 주제는 주로 중세적인 유교이념의 지향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²⁾ <양현문> 역시 이러한 지적에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kmoonjong@hanmail.net

1) 이하 <양현문>으로 표기한다.

2) 임치균은 김진세, 「조선조 대하소설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가층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조 대하소설 주제의 지향성을 밝힌 바 있다. 임치균,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 향상과 의미」, 『韓國文化』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135쪽.

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인 楊縮·張九齡, 허구화 된 인물인 양관의 부친 양상현·장구령의 딸이자 양관의 첫째 부인 장천주와 양관의 친구 석응현 등을 중심으로 '忠·孝·烈'을 구현하고 있다.

<양현문>에 대한 연구는 정병욱³⁾·김기동⁴⁾에 의해 자료 소개 및 해체에 머물러 있다가 임치균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필사기를 통해서 전문 필사자의 존재 가능성과 전편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사적 특징에 있어서는 처첩간의 갈등이 없고, 군담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인한 복잡한 관계가 결국은 갈등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주인공인 양관과 운설대사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점을 들어 작품 내에서 불교와 유교가 수평적이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⁵⁾ 이러한 초기 연구 이후 대장편소설의 주제의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忠'의 구현 양상을 고찰했다. 忠臣群과 奸臣群의 대립이 진행되다 혼인을 기점으로 갈등이 축소된 후 '忠'이 개인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혔다.⁶⁾ 윤경아는 대립된 인물들의 갈등과 주요 인물들의 희생적 행위를 통해 '忠'·'孝'의 구현 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특히 슬픈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유교적 이념을 體化시키게 하는 문학적 효과를 검토하기도 했다.⁷⁾ 한길연은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翁婿對立談의 보편적 성격 및 각 단위담의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현문>에 등장하는 장인과 남편 간의 전면적인 대립과 그 속에서 원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장천주의 삶을 통해 '한의 응축'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⁸⁾ 이처럼 임치균의 초기 연구

3)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44·45합집, 국어국문학회, 1989. 「제3회 국어국문학연구자료전시회 樂善齋文庫 目錄 및 解題」, 23쪽.

4) 김기동 편, 『筆寫 古典小說全集』17, 아세아문화사, 1980. 작품 전체 해제를 실었다.

5) 임치균, 「<양현문작집기> 연구」, 『이수봉교수정년기념논총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749~769쪽.

6) 임치균, 앞의 논문, 139~142쪽.

7) 윤경아, 「<楊賢門直節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 연구에서 이분의 검토와 楊縮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 및 인물의 소설화 등도 함께 고찰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며, 이는 장을 달리 하여 검토할 것이다.

를 제외하면 주로 작품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 즉, 유교적 이념의 구현 양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둔 필자의 연구는 <양현문>의 창작 과정에서 활용된 기법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층위에서 이 작품을 검토할 것이다. 첫째는 前作의 수용 양상이다. 이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전작의 존재 양상'에 대한 보완과 구체적 수용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는 역사적 실재 인물의 허구화 양상이다. 특히 주인공과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등장인물의 사실성을 축소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서사 진행에 있어 逆轉構成의 활용 양상이다. 단순한 서사진행을 극복하고, 독자의 흥미성을 높이는 대장편소설 창작 기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를 위해 필자는 24권 24책의 규장각 소장본(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을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장서각 소장본과 비교해서 표기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자료의 접근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양현문>의 창작 과정에서 활용된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총체적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前作의 受容

<양현문>을 창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바로 前作이므로, '전작의 수용'은 이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작의 수용'을 가장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8)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웅서대립담 연구」, 『古小說研究』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00~303쪽.

첫째, 前作을 바탕으로 하여 <양현문>으로 파생되는 과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치균은 <양현문>의 전작 존재 가능성을 지적했다.⁹⁾ 그러나 이 논의에서는 주로 連作形(三代錄)의 문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양의신→양건→양상현→양관→양관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제시하고 <양현문>이 '양상현→양관'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작품의 뒷부분에서 양관 자손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고, 끝에 가서 <수대쌍환호구성취회>를 후작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작을 '양건→양상현'이 중심이 된 작품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22권과 24권에서 주로 양관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생략되는 많은 부분들이 전작에 실려 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들을 볼 때 前作은 '양건→양상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양씨 일가 3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 안에서 전작의 구체적인 제명이나 서명은 드러나지 않지만 '~한 내용들은 소설에 이미 있어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작품 내에서 언급된 특정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 전작의 수용과정과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①승상 삼 곤계의 즈여 손증의 성취호던 설해난 소설의 희비호고 ②승상 곤계 빅슈 안락호야 허다 즈손의 무궁한 영호을 바다 부귀 복록이 재미호야 텃년으로써 종한 배 다 소설의 이실 배이니 니에 읍어지 아니호고 ③다만 양시 데인의 효우선호을 기록호야 양승상의 갈통대도와 디호지성니며 학형 문덕을 멸호미 앓가옵시 조"히 기록호야 후세 불효즈을 권당케 호고 효열 부인의 송죽 갖튼 절기와 상설갖흔 열의을 텃고의 드리워 씨 계■으 숨을지 니(아세아 19권 540~541쪽)¹⁰⁾

9) 임치균, 「<양현문지설기> 연구」, 『이수봉교수정년기념논문총·고소설연구논문총』, 경인문화사, 1994.

10) 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용문에 밑줄 표시 및 진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의 출처를 표시함에 있어 이하 동일하게 할 것이다.

위의 예문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1쪽 반 분량의 에필로그 중에 앞부분에 속하는 내용이다. 짧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 양관 형제들의 자손들이 혼인하는 내용을 전작에서 이미 다뤘음을 알 수 있다. <양현문>에서는 양관과 한소저[㉪]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인 양계홍이 장천주의 친척인 장소저와 혼인하는 내용과 양관과 장천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양선홍과 한상서의 딸인 한소저[㉫]가 혼인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양관과 한소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인 양성완과 석응현의 아들 석응인과 혼인하는 내용과 양관과 장천주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인 양숙엽과 두경환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옥현과의 혼인 내용 및 양관과 영숙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인 양유홍과 두경환의 딸인 두소저와의 혼인 내용은 비교적 자세히 다루면서 이 작품의 후반부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양관은 장천주와의 사이에 5자 2녀, 한소저[㉮]와의 사이에 5자 1녀, 영숙공주와의 사이에 3자 4녀 등 총 13자 7녀를 둔다. 뿐만 아니라 양담은 진씨[㉯]와의 사이에서 5자 2녀, 양창은 위부인과의 사이에서 7자 3녀를 두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양관의 자식들 중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에 대한 혼인만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①의 언급을 통해 볼 때 <양현문>에서는 양관 형제들의 자손들이 혼인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생략되고, 위의 네 명의 혼인에 대한 내용만을 전작에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의 언급을 통해 양관의 형제들이 자손들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내용들이 전작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현문>에서는 양관의 자식 중 일부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야기가 혼인 관련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

11) <양현문>에서는 '한소저'라는 동명이인이 4명 나온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많이 다뤄지는 양관의 둘째 처를 '한소저[㉮]'라 명명했다. 이후 등장인물 중 同名異人인 경우 동일한 표기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서, 양관 형제들의 자손들이 효도를 다하는 이야기는 거의 생략된다. 따라서 ②의 언급처럼 전작에 있었던 양관 형제들의 자식들이 효를 실천하는 내용들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 역시 <양현문>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의 언급을 통해 양상현 · 양상원 · 양상휴 형제들과 그 다음 세대인 양창 · 양담 · 양관 · 양현교 중에서 양관의 충효와 學行 등을 중심으로 <양현문>이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 번째의 언급은 <양현문>의 전체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①과 ②의 경우 역시 단순한 필사기 수준을 넘어 전작의 내용을 유추하기 위한 근거로써 부족함이 없다.

둘째, 과생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구체적 사건들의 생략이다.

③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양현문>이 前作에서 주로 취한 부분은 양관의 忠孝 · 學行 및 장천주의 節概와 烈義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①과 ②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언급되는데, 그 생략된 내용들이 22권과 24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초후 길시의 닷집의 처하나 낮인죽 상부의 와 존방부모를 뵈셔 지니고
 밤인죽 본부의 도라오나 너당의 즈최 님흐미 업고 이 창을 후당의 금초앗다
 가 밤인 죽 더부터 열낙흐니 가뉘미 모르리 업스디 두소져 조꿈도 거리씨미
 업셔 그 부정헌 거뉘을 내치 아니플 도로혀 쇠훤이 너겨 오직 너스를 총찰
 햐야 우흐로 제스를 밧듬과 아리로 비비를 거느리미 다 구구의 어귀미 업스
 니 길스는 그스를 아란 테 흐미 업셔 날노 이 창으로 즐기나 부형이 알가
 조심흐를 지극히 흐더니 후리의 니부인 상스로 상부에서 거지 하향흐나 길
 스 부부는 췌나지 못햐야 경스의 머므러 왕니홀 시 이 창외 요악흐미 상뵈
 공허헌 췌를 타 길스를 농낙햐야 두소져를 일당 대화를 지어니고 길시 부견
 의 삼 년을 니치여 용납지 못흐미 비로소 회과초칙햐야 언뎡의 글을 읊너
 샤죄호고 용납흐를 어드미 두소져로 화락햐야 유즈심너 호고 작위 삼타의

12) 양유홍, 양관과 영숙광주 사이에 태어났으며, 양관의 셋째 아들이다.

니르고 영화부귀 극진하니 이 설패 소설의 혼 고로 츠던은 번다흐물 취치
아니흐야 이에 다시 올이지 아니흐다(아세아 19권 414~415쪽)

위의 예문은 22권 끝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22권에서는 양관의 자녀들이 연이어 혼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양관과 영숙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양유홍과 두경환의 딸 두소저의 혼인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타고난 기질로 인해 양유홍은 결혼 하자마자 두소저와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긴다. 특히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를 후당에 들여 밤마다 성생활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부친인 양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3년 동안 내침을 당한 후에 悔過하고 두소저와 다시 부부의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이 내용을 기초로 유추 해 본다면 인용부분의 이야기는 “혼인과정→즐거운 부부생활→첩의 출현→양유홍과 첩들 간의 문란한 생활→두소저의 바른 생활과 첩들 간의 갈등→양관의 사대 괴악→양유홍의 첩 제거→양유홍의 귀양→양유홍의 3년 간 고생→양유홍의 회과와 가정의 화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현문>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작에 있다는 이유와 번다하다는 이유로 생략한 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22권의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24권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에필로그 중에서 ①의 언급을 증명해 주고 있다. 선남선녀가 만나 혼인하고 성생활의 자유로움 및 부자간의 대립과 해결 등은 소설의 흥미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특히 작품의 장편화에 있어 굳이 생략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을 제거한 것이다.

양쇼제 인히여 머므려 효봉구고호고 화우숙미 흐며 승순군즈 흐야 쇼심
익익히 일호 미진히미 업스이 …… 황축은 씨씨 이라려 당황한 거지와 의
심된 언어로 두심의 의심을 도도이 심이 텃성이 호상호고 총명이 절인히더
홀로 소저을 향하야 이갓트른 앙익이 래뉘히미라 날이 오리미 즈년흐야 부
되 알고 크게 고이히 너겨 부인니 심을 힐문호죽 친영 날 양부 연고을 즈시
고호미 경악흐물 이디 못흐야 …… 태우 한번 드르미 대로흐야 으즈을 둥장

혀야 심당의 김히 두어 좁인으로 상접지 못하게 하고 황축이 니랄 씨의 발
 ■절척혀야 일당을 대척혀야 시노로 휘축혀이 황개 디원혀야 비인계로써 두
 성을 가져 빅가지로 농락고져.....두성의 총명을 가리오고양쇼계 변복
 유리혀야 만상역경을 지니미 이 설해 소설의 허비혀여시를 이에 다시 올
 이지 아니혀나(아세아 19권 497~499쪽)

위의 예문은 24권 중간 부분의 내용이다. 양관과 장천주 사이에서 태어
 난 둘째 딸인 양숙연과 두경환과 이씨(卍) 사이에서 태어난 두옥현과의 혼
 인과정과 부부생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혼인 과정은 이
 미 앞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언급하며 요약정리하
 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양유홍과 두소저의 혼인관계와 생활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는 서사의 시작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반면,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양숙연과 두옥현의 혼인 및 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서는 끝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즉, <양현문>에서 양숙연(13)과 황번 사이
 에 벌어졌던 사건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두옥현(14)이 양숙연을
 부정한 여자로 오해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부친(두경환)은 아들인
 두옥현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태장을 가한다. 이때 양숙연은 오해가
 풀려 혼인을 했으나 두옥현의 오해로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지만, 일상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양현문>에서는 이 내용까지 서술되어 있으며, 두
 옥현과 양숙연의 혼인 후 풀려난 황번이 원한을 품고 끝까지 이 부부를
 이간질시키고 이로 인해 양숙연이 고난을 겪는 과정은 전작에 있다는 이
 유로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양현문>은 다시 양창과 양관의 자식 이야기를 중심으
 로 하여 후작이 창작된다.

희라 조고로 탐신과 효지 업지 아니혀고 결부와 열에 왕왕 뉴지혀는 엇지
 양승상과 당부인 갓탄 지 또 니시며 형우데공혀미 또 승상 관계를 섯랄 지

13) 楊縮과 장천주 사이에 태어난 딸. 자는 여순. 두옥현과 혼인함.

14) 두경환의 長子. 자는 춘보.

이시리오 시절 스람이 효우을 일카라미 반다시 양승상 근계을 쌀와 배호라
호이 승상 근계 효우선형이 시절의 일흠난지라 대락을 거두어 올려 씨 만세
의 드리워 서로 던호계 호이 차전 소설이 슈대쌍환호구성취회라 호야 덩
간공 턴홍의 근계와 문익공 경홍의 근계와 문의공 선홍으로브터 즈손의
스적니 허비호이라(아세아 19권 541쪽)

위의 예문은 <양현문>이 끝나는 부분이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양관과 장천주의 忠·孝友·烈 등이 당대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하고 본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과 이러한 분위기를 모두 모아 한 편의 소설을 지었는데, 그 제목이 ‘슈대쌍환호구성취회’이며, 그 내용으로는 양창의 장자인 양천홍¹⁵⁾·양경홍¹⁶⁾·양관과 장천주 사이에 태어난 장자인 양선홍¹⁷⁾의 사적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15) 양창의 長子. 20세가 되는 해에 한화수의 딸과 정혼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숙공주가 친정에 갈 때 호위하기도 하고, 영숙공주가 병으로 고생할 때 간호하는 등 주로 영숙공주를 돌보는 일을 많이 한다.
 - 16) 이 작품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이는 양담과 진씨(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양상현의 자식이 양창, 양담, 양관의 순서로 되어 있고 양천홍이 양창의 장자며, 양선홍이 양관이 장자이므로 양경홍을 양담의 장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17) 楊紉과 장천주 사이에 태어난 長子. 양관의 세 부인들의 서열을 정한 그 해 겨울에 장천주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고 그 이름을 양선홍으로 짓는다. 이부인이 양관의 첫째 아들이 혼인하는 것을 보고 죽으면 餘恨이 없다고 하자 양관이 서둘러 혼처를 구한다. 그러던 중 양상현의 추천과 한유(한)와 한상서 및 양관의 합의로 한유(한)의 손녀이자 한상서의 딸인 한소저(한)와 혼인하게 된다. 혼례식을 마치고 祖父와 부모의 취침과 안부를 모두 확인한 후 新房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때 한소저(한)가 찾아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이어 모친인 장천주가 양선홍 부부를 불러 많은 얘기를 나눈 후 돌아간다. 이에 잠자리에 들면서 한소저(한) 자신의 부인으로서 예를 다하면서도 부부의 정을 다한다. 다음 날 부인을 데리고 南樓로 가서 부모인 양관과 장천주에게 晨省을 다한 후 양관의 안대를 받으며 양상현 부부에게 가 역시 신성을 다한다. 얼마 후 국가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 設科하자 과거에 응시해 장원급제하여 翰林編修東宮侍讀을 除授 받았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10년을 더 공부한 후에 다시 벼슬에 나가기로 한다.

3. 事實性 縮小와 주인공 드러내기

주지하듯이 <양현문>은 양관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역사적 실재 인물들이 등장한다.¹⁸⁾ 특히 <양현문>의 작가는 역사적 인물들을 수용함에 있어 많은 부분들을 축소시켜 버린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의 사실성 축소는 양관과 그 외의 인물들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양관의 실무능력, 정치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축소하여 인간성 즉, 眞 · 孝 · 儉의 실천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재 조선시대에는 『舊唐書』에 실려 있는 <楊縮傳>을 기초로 한 양관에 대한 인식과 언급이 매우 많은 곳에서 보인다. 특히 '明經科와 進士科를 혁파하고 孝廉科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¹⁹⁾과 '張后에 대해 언급한 말이 없는데 이 말이 어느 글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²⁰⁾, '검소함에 대한 내용'²¹⁾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즉, 조선의

18) 윤경아의 앞의 논문, 10~15쪽.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재 인물이 소설화 된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룬 역사적 사실과 소설화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이 성파를 바탕으로 필자는 역사적 인물의 소설화에서 주로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거나 변형하는 양상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19) 『성종실록』 82권, 8년(1477) 丁酉 / 明 成化 13년 7월 24일) 3번째 기사 <유진·이장신 등과 예부 시랑 양관의 효령과 설치 상소에 대해 논하다>, 『성호사설』 제 10권 人事門 <孝廉科上>, 제27권 經史門, <楊縮試法>, 趙翼의 『通雅集』 제 12 권 籒 十一首 <流道를 논하면서 先朝 때에 건의한 네 가지 일을 함께 올린 차자>, 『弘齋全書』 제26권 縮字 1 <과거제도를 변동하도록 한 유언>, 제117권 經史講義 54 綱目 8 <唐代考>, 『다산시문집』 제9권 疏 <持平을 사양하면서 겸해 과거의 폐단을 진술하는 疏>

20) 연려실기술』 제20권 廢王光海君故事本末 <후妃를 폐하여 西宮에 있게 하다>

21) 『연산일기』 13권, 2년(1496) 丙辰 / 明 弘治 9년 3월 25일) 4번째 기사 <대간이 정문형이 삼공에 합당하지 않음을 논하다>, 『중종실록』 12권, 5년(1510) 경오 / 明 正德 5년 12월 8일) 2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세필이 정치 방법의 세밀·제사 배향 등에 대해 상소하다>, 『선조실록』 135권, 34년(1601) 辛丑 / 明 萬曆 29년 3월 22일) 3번째 기사 <대사헌 윤승길 등이 경연·궁급을 엄하게 해야할 것 등을 상차하다>, 아계 이산해 연보 부록 <誌文>, 『성호사설』 제27권 經史門, <楊縮試

지식인들은 <양관전>을 기초로 하여 과거제와 관련된 내용과 각자의 음악 줄였다든 내용을 근거로 한 검소함을 주로 수용했다. 반면 <양현문>의 저자가 <양관전>의 내용을 수용하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회라 즈고로 튼신과 효지 업지 아니하고 절부와 열에 왕왕 뉴지흐는 엇지 양승상과 당부인 갓탄 지 쏘 니시며 형우데공흐미 쏘 승상 곤계를 쓰랄 지 이시리오 시절 스람이 효우을 일카라미 반다시 양승상 곤계를 팔와 배호라 (아세아 19권 541쪽²²⁾)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현문>의 저자는 양관이라는 인물의 충성과 효에 대한 사실을 수용하여 서사화를 통해 집중 조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관에 대한 조선사회 인식 중 가장 많고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인 과거제도 개혁 부분은 소설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

둘째, 부수인물들의 역사적 사실 축소를 통하여 주인공인 楊縮을 부각시키고 있다.

<양현문>에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소설화에 중심이 되는 인물들 역시 많이 등장한다. 당현종, 양귀비, 안록산, 이림보, 각자의, 이광필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나 소설에서의 활용도를 통해 볼 때 이 인물들은 작품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현문>에서는 그 캐릭터의 특징을 약화시켜버린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소설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양관과 혼인 관계를 통해 인연을 맺는다. 당현종인 경우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과 가끔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들이고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는 장면에서 간단히 언급된다. 그리고 안록산이 난을 일으킬 때 촉명으로 파

法>, 『林下筆記』 제1권 四時香館編 <考史>
22) <양현문> 24권 끝부분.

천하면서 잠시 등장하는 것 외에는 작품 내에서의 역할이 미약하다. 특히 마외역에서 양귀비를 죽일 수밖에 없을 때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당현종에 비하면 양귀비의 역할은 더없이 축소된다. 양관을 사위로 삼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양귀비의 자매 및 친척들, 안록산, 이림보 등과의 관계 및 현종과의 관계 역시 대부분 생략되어 소설화 되지 않는다. 당현종 시기를 주요 배경으로 한다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인물들의 역할 및 성격이 매우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림보는 양관과 翁媪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설화 된다. 물론 장천주가 우연히 이림보와 윤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효주를 대신하여 살아가면서 생긴 다소 비정상적인 관계다. 이림보의 소설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악인의 성격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인공 장천주가 부친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동시에 양관의 장인으로 등장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치적·사회적 악인의 캐릭터는 대부분 사라지고 양관을 사위로 삼기 위해 다소 무리하면서 충신들을 귀양 보내는 장면을 제외하면, 양관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叢話를 통해 示한 인물로 묘사될 뿐, 실제 사건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은 거의 없다. 대부분 부인인 독고씨와 첩 윤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장천주를 돌보는 일, 그리고 사위인 양관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등이 중심이 된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숙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조정의 신하들은 현종 시절 간신들 중에 이림보를 가장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亂棺斬屍를 건의할 때 주인공인 양관은 오히려 이림보를 변호한다. 즉, 이림보 같은 인물이 있어서 안록산의 발호를 막은 것이고, 이를 이림보의 공으로 추켜세운다. 이처럼 다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口蜜腹劍으로 대표되는 이림보의 음흉함과 실제 악인으로서의 특징을 제거해 버린다.

곽자의의 경우 주인공인 양관과 장천주와 아무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특히 <양현문> 안에서 그의 역할 및 캐릭터는 대부분 생략된다. 이광필과 더불어 안록산의 난을 진압한 최고의 공신이고, 이후 분양왕으로 봉해져 당나라 최고의 공신으로 인정받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인물이

다. 이후로 그는 富貴榮華의 대명사로 묘사되며, 조선에서는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지어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양현문>에서는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궤자의가 <양현문>으로 소설화 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하여 양관과 비교되면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즉, 당나라 공신의 이미지는 모두 사라지고 주인공인 양관의 검소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간단히 예를 드는 수준에서 언급된다.

이광필은 양관의 여동생인 양현교와 혼인하게 되면서 양관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광필 역시 안록산의 난을 평정한 최대의 공신이다. 그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양현문>에서 소설화 되면서 모두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에서 이광필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광패한 성격이 능허자를 만나면서 다듬어지고 무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한 후 양현교와 혼인하는 부분으로 전경화가 이루어진다.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출정한 후에도 그의 역할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생략된다. 오히려 촉 땅에 부임했을 때 요괴가 출몰하자 양관에게 물리쳐 줄 것을 부탁하고, 양관은 이를 수락하여 문장으로써 요괴를 물리친다. 이처럼 이광필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무인으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양현교와의 혼인을 기점으로 소설 속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사라진다. 양관이 석응현과 함께 안록산의 잔당인 고덕유를 물리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의 역할은 아예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관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광필의 캐릭터를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逆轉構成을 통한 敘事의 進行

역전구성이란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진행되는 순서를 역전시켜 재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처럼 사건을 역전시켜 재구성할 경우 서사물을 해석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작품을 이루는 여러 사건들을 대조시켜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의 강조와 서스펜스(suspense)의 발생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소설의 미적 쾌감을 비롯하여 독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흥미성을 높일 수도 있다.²³⁾

<양현문>에서는 사건이 미리 서술된 후 그 사건이 발생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앞에서 서술된 사건의 단계를 지나 계속 진행시키는 역전구성 기법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한다. 단지 등장인물들이 이별 후 만남에서 그 전의 사건들을 요약정리해 대화로 활용하는 양상과는 매우 다르며, 작품 전체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귀비 하일업서 이의 상과 고희고 일이 순편토록 홀시 상이 님보의 뜻을 깃기고 턴하의 공변 되물 즈랑코져 호샤 니시을 봉호야 효장공주을 숨고 식읍을 주어 존봉호시고 양부의 하지호스 학스의 들지 부인을 맞게 호시니……(아세아 17권 31~32쪽)

⑤……심상한 인물이야 쉬운 일이리요 사똥의 투한한 부인을 두어시니 정히 숙문데 황후 독고시의 거러라(아세아 17권 33~34쪽)

⑥독고시 소적의 방상옥걸지심을 더려여 일상 신세를 회짓고져 한 거시 도로혀 턴군리남 대군즈의게 혼인니 성전케 되니 애달오불 이기지 못 하더라(아세아 17권 43쪽)

④는 이림보가 현종에게 압력을 가해 결국 이효주(장천주)를 양귀비의 양녀로 삼게 하고 효장공주로 봉해 양관과 혼인시키는 이야기의 끝 부분

23) 제랄드 프랭스(Gerald Prince) 저, 최상규 역,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지성사, 1988, 82쪽. 이야기의 줄거리(story line)와 플롯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주로 사건 발생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처럼 서술대상(사건)의 순서와 서술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역전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 해당한다. ⑤는 장천주가 이효주라는 인물로 이림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의 첫 부분이다. ⑥은 양관과 이효주(장천주)와의 혼인을 결정하는 장면의 끝 부분이다.

이처럼 양관과 장천주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과정²⁴⁾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⑤→⑥→④’가 된다. 즉, 앞에서 이미 사건의 흐름을 서술한 후 과거로 돌아가 그 사건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시키고, 과거로 돌아가기 직전의 사건에 연이어 서사가 계속 진행된다. 특히 이 부분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두 인물의 혼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역전구성은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유^㉑의 딸인 한소저^㉒와 장구령의 딸인 장천주와 이미 정혼한 양관은 처음에 작중 부정적 인물인 양귀비의 권력을 극복하지 못해 그녀의 딸인 영숙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림보의 권력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너져 그녀의 딸인 이효주(장천주)와 혼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가는 창작 과정에서 이러한 단순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 하지 않는다. 이림보의 권력과 현종의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인한 장면을 지나 3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혀 다른 사건을 개입시킨다.

24) 장천주는 장구령(張九齡)과 설씨^㉑ 사이에서 태어난다. 삼세가 되던 해에 조모(祖母) 정씨가 죽자 식구들이 함께 배를 타고 낙향할 때 대풍(大風)을 만나 식구들과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월계사의 혜정법사에 의해 구출된다. 이때, 이림보의 첩인 윤씨가 낳은 이효주가 3세에 죽게 되자, 윤씨는 이효주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비슷한 용모(容貌)와 같은 나이를 가진 아이를 사게 되는데, 수많은 후보 중에 혜정법사에 의해 목숨을 건진 장천주가 윤씨에 의해 선택되어 윤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장천주는 이효주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이림보(李林甫)와 윤씨 사이에 태어났으나 세 살에 죽은 이효주라는 인물로 독고씨의 꾀박을 받으며 계속 살아간다. 육 세가 되던 해에 독고씨의 태형(笞刑)과 계속되는 꾀박으로 인해 윤씨가 죽자 슬퍼하며 신주(神主)를 지킨다. 이림보가 그 형상이 애처롭고 불쌍해 보여 월환(月環)을 만들어 주자 감사하며 몸에 꼭 지니고 지낸다. 양상현과 양관(楊綰)을 비롯하여 양씨 일가의 사람들이 이림보의 집을 지나던 중 독고씨가 장난으로 월환을 던진 것이 양관에게 닿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림보가 혼인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양상현과 양관은 반대하지만 현종(玄宗)이 그녀를 효장공주로 삼아 양관과 혼인을 하게 한다.

즉, 이효주 출생의 비밀에 관련된 사건이 전개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서 실재는 이효주가 양관과 정혼한 장구령의 딸 장천주임을 밝히는 큰 반전이 전개된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운씨의 시비이자 장천주의 유모인 열섬을 제외하고, 등장인물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독자들에게만 이효주의 출생 및 성장의 비밀이 밝혀진다. 따라서 사건이 흐름 속에서 장천주 자신을 포함해 모든 주요인물들이 6권 끝 부분에서 이효주가 장구령의 딸인 장천주임이 밝혀질 때까지 작품의 약 1/4 정도의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관이 계속하여 장천주를 멀리하려는 모습과 장천주 역시 양관과 부부의 정을 나누지 않으려는 상황을 등장인물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여길 수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이 사실을 밝혀질까 하는 조바심마저 갖게 한다.

서사 진행에 있어서 역전구성의 활용은 급반전을 통한 우연 같은 필연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양관이 간신들과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장천주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는 과정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양관이 충신의 역할을 하다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면, 장천주는 정절을 지키다가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 특히 이 부분에서 장천주는 두 번째 고난의 행보를 걷는다. 이 작품의 작가는 서사적 흐름의 역전을 통해 두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매우 긴장감 있게 구성한다.

⑦ 학시 장춧 긴 설화를 펴고져 하니 아지못게라 설도인의 전후 너력과 슈미 엇더흐며 학스의 반며 깃거 호미 연초흐니 촌인이 하허인야오(아세야 18권 178쪽²⁵⁾)

⑧ 차설 텃디도관 이리로 각분삼도 흐엇시니 곳 유도와 불도와 선되라…… 텃보 원녀의 과궤 농문산 월계스의 인위 승불 여시 강님흐니 범명은 세오선성이오 도 호는 운설대시라……스중의 삼빅 데즈를 거느려 혼갈궤치 승불도 텃흐야 무량지력이나 기뵈 데즈 혜정법시 더욱 신통흐야 심선호 리 업스니

25) <양현문> 11권 중간 부분.

(아세아 18권 178~179쪽²⁶⁾)

⑨언과의 불열정식하고 이에 밍성으로 설은 식흥 등을 브르니 성음이 웅호하고 괴위 정엄하야 ……설은 식흥 등이 창외의 디후하야 외인을 금지하디니 몽미 밧 학시 저의 본명을 브르믈 드르미 상고실식하야……설은 식흥 등이 소저의 본식이 탈누하믈 쯔드라 일변 놀나고 일변 횡열하니 오직 머리를 두드려 명을 바드미 학시 소저를 향하야 풀홀 드러 왈 스세 여츠하고 복이 혼갓 처실이라 하야 거취를 처단하미 아니라(아세아 18권 209~212쪽²⁷⁾)

⑦은 장천주가 설진인의 모습으로 죽음에 직면한 양관을 구한 후 현종에게 벼슬을 제안 받지만, 의술만을 가지고 벼슬을 하는 것이 불가함을 고한 후 양관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⑧은 ⑦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며 과거로 돌아가 장천주가 설진인으로 행세하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⑨는 설진인이 장천주임을 양관이 알게 되는 장면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서사의 흐름은 ‘⑧→⑦→⑨’의 순서로 진행된다.

⑧에서 ⑦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이 작품에서 장천주의 위기 때마다 등장해 구해주는 운설대사와 혜정법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어 장천주가 양관을 비롯한 양씨 일가와 헤어져 설진인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한 후 양관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장천주가 설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목숨을 구한다. 이에 감동한 현종이 설진인의 모습을 한 장천주에게 벼슬을 제안하지만 이를 거절한 후, 양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러던 중 양관은 설진인이 낯설지 않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되고, ⑨에 이르러 비로소 설진인이 장천주임을 확신하게 된다.

<양현문>은 처음부터 약 2/3 정도까지는 대부분 양관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비록 장천주와 양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남과 헤어짐을 다루면서도 장천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 이러한

26) <양현문> 11권 중간 부분.

27) <양현문> 11권 끝 부분.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좀 더 흥미 있게 엮어가기 위해서, 서사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기법을 활용하여 반전의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양관이 병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고 의술을 익힌 장천주가 설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양관의 병을 고치게 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서사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 설진인이 장천주임을 드러낸다.

작품 내에서 장천주는 양관과 헤어진 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얼굴과 신체에 자해를 가한다. 그 결과 비록 해정법사에 의해 구출되고 월계사에서 모두 회복 되었지만, 얼굴의 모습은 물론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과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특히 의술과 환혼술을 익히게 되면서 장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의 변신에 성공한다. 이때 월계사에서 양관의 운명이 적힌 책을 통해 양관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하산한 후 우연을 가장하여 양관의 병을 고치고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 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나려 한다. 그러나 양관과 장천주의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연이므로 양관과 설진인의 대화를 통해 설진인이 장천주임을 밝히는 급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²⁸⁾

5. 結論

위에서 <양현문>의 창작과정에서 보이는 몇몇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앞의 논의와 그에 따른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양현문>이 前作에서의 파생 과정에서 사건들을 생략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고찰을 통하여 <양현문>은 3代の 이야기가 모두 존

28) 이처럼 서사의 진행을 역전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주요 인물들의 서사의 흐름에서 퇴장했다가 복귀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활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뿐만 아니라 13권 앞부분에서 장구령이 죄가 풀려 해배 된 후 안록산의 난을 피해 축으로 피난 간 현종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약 16쪽 가량의 분량을 할애하여 과거로 돌려 진행하기도 한다.

재하는 三代錄 형식의 前作을 바탕으로 하여 양관의 忠孝·學行 및 장천주의 節概와 烈義를 주로 수용하여 창작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다. 그 원인은 '㉓부분의 언급'을 통하여 '번다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양현문>은 창작 단계에서 이미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은 양상현과 양관 및 장천주를 중심을 二代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양씨 일가의 선행, 양관의 忠孝와 學行, 장천주의 烈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후대에 전하고 이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 창작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아무리 흥미롭고 장편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현문>의 창작의도와 주제를 드러내는 데 번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後作으로 미룬다.

둘째, <양현문>은 역사적 인물들을 활용하였으나 그 사실성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적 실체인 楊縮을 서사화 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의 실무능력과 정치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를 대표하는 唐玄宗, 楊貴妃, 이림보, 郭子儀, 李光弼 등에 대해서도 사실성을 축소하고 다소 변형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주인공인 양관의 忠·孝·儉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를 이끌었던 중심인물의 사실성 축소와 변형은 주인공인 양관과 장천주의 忠·孝·烈義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셋째, 작품 전체의 서사진행에 있어 逆轉構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간의 人間關係와 사건들의 因果關係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와 독자는 서사 속의 인물들보다 上位에서 서사의 흐름을 지켜 볼 수 있게 된다. 이효주가 장천주로 밝혀지는 순간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안타까워 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독자들에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몰래 지켜보는 즐거움을 주면서 작품의 전

반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작품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다. 급반전을 통하여 우연 같은 필연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서사 주체들의 신분이 밝혀지는 급반전을 통하여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지고 의문에 쌓였던 일들이 드러나면서 서사의 구성이 완성된다.

본고는 <양현문>의 창작 기법과 서사 진행상의 의미에 천착하다 보니 작가의 의식 및 타 대장편소설과의 비교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타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작품만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 핵심어: 전작의 수용, 파행과정, 사실성 축소, 역전구성, 급반전

<참고 문헌>

- 김기동 편, 『筆寫本 古典小說全集』17~19, 아세아문화사, 1980.
- 김진세, 「조선조 대하소설연구-〈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 윤경아, 「〈楊賢門直節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가층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임치균, 「〈양현문직절기〉 연구」, 『이수봉교수정년기념논총-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749~769쪽.
- 임치균,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 향상과 의미」, 『韓國文化』1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135쪽. 139~142쪽.
- 정병욱, 「제3회 국어국문학연구자료전시회 樂善齋文庫 目錄 및 解題」, 23쪽.
- , 「낙산재문고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44·45합집, 국어국문학회, 1969.
- 제랄드 프랭스 저, 崔翔圭 譯, 『서사학-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문학과지성사, 1988, 82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최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웅서대립담 연구」, 『古小說研究』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300~303쪽.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techniques of
<楊賢門直節記(Yanghuynmunjikjeolgi)>

Kang Moon-jong

<楊賢門直節記> is a novel created by mainly accepting the loyalty, filial piety, learning and practice of 楊綰 and the fidelity and spirits of 장천주, based on the former work of three-generation record style which covered all the stories of three generations. It was created to make later generation know and follow the good acts of 楊 family, the loyalty, filial piety, learning and practice of 楊綰 and the enthusiasm of 장천주. Therefore, however interesting and helpful for making full-length novel the stories of next generations were, they are only unnecessary or somewhat overlapping to reveal the intent and subject of creation. So, the stories of next generations will be treated in the next work.

<楊賢門直節記> made use of historical figures but downsized their realities greatly. In the narrative of real person 楊綰, his executive ability and political power was downsized. Moreover, reality was reduced and slightly transformed with respect to 唐玄宗, 楊貴妃, 李林甫, 郭子儀 and 李光弼, who represented the times. This reality downsizing functions to play up the loyalty, filial piety and fidelity of heroes, 楊綰 and 장천주.

For the narrative of overall work, reverse composition was adequately used. Such reverse composition made characters unable to understand the human relationships and casual relationship while

readers recognize both relationships. So, the narrator and readers could overlook the flow of narrative, from the viewpoint higher than the characters. It not only gave readers the pleasure to see secretly the progress of events but also made out chance-like inevitabilities through dramatic reversal.

• Key Words : Acception of former work, crippled process, reality downsizing, reverse composition, dramatic reversal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3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